

## 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에서 Bankart복원술 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정형외과

태석기 · 정영복 · 이종석

### 연구목적

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에서 Bankart 복원술 후 중기 추시상의 임상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있었다.

### 대상 및 방법

견관절의 외상성 전방 불안정증에 대하여 Bankart복원술을 시행한 후 2년 이상(범위 2년~5년 6개월; 평균 3년 1개월) 추시된 47예(남자 41예, 여자 6예; 연령 15~56세)를 대상으로 이환 기간, 탈구 횟수, 전신적 인대 과이완, 진단적 관절경 검사에서 발견된 관절내 병변에 따른 최종 추시점의 견관절 기능점수(University of Pennsylvania 견관절 기능점수정상측 점수에 대한 비율, 양측성 1예는 만점에 대한 비율) 및 잔류 증상의 차이를 알아 보았다.

### 결 과

이환 기간과 탈구 횟수는 견관절 기능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탈구횟수가 30회 이상인 경우(16예) 탈구 감의 잔류가 흔하였다. II형 SLAP병변 및 회전근개파열이 있었던 예의 결과는 다른 경우와 차이가 없었다. 중등도 이상의 전신적 인대과이완이 동반되었던 예(8예) 중 2예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결과의 점진적 악화를 보였다. 비전형적 Bankart병변(ALPSA병변, 골성 Bankart병변)의 존재 및 Hill-Sachs병변의 크기(대, 중, 소)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결 론

지나치게 많은 수술 전 탈구 횟수 및 동반된 전신적 인대과이완은 Bankart복원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반된 관절내 병변이 결과를 나쁘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